

한·일 여성 정치네트워크 비교 고찰을 통한 정치참여 확대 방안에 관한 연구

서헌주* · 김경숙** · 송미영***

초 록

본 연구는 18대 국회의원 선거 국면과 17대 국회의원 선거 국면과 크게 차별성을 띠는 현상의 하나로 여성 관련 단체 및 NGO 또는 연구기관 간의 연대조직 또는 네트워크 조직화가 현격히 줄어들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필요한 중요한 조건들 가운데 하나로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한 조직화 또는 네트워크화를 주장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여성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법·제도적 차원의 논의는 다양한 수준에서 이루어 지는데 반해서 지역차원의 여성 관련 단체들 간의 연계를 통한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논의의 초점을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한 네트워크 형성에 두고, 그것의 필요성, 개념 및 역할 등에 대해서 살펴본다.

여성정치네트워크는 여성의 정치참여의 당위성과 그러한 당위성에 문제를 제기시키는 우리사회의 다양한 사회구조적 장벽들을 일정부분이나마 극복 하는데 도움을 준다. 즉, 전국적 수준은 물론 지역 수준의 여성단체들이 직면 하는 문제 즉, 정치참여에 있어서 중요한 인적 자원이나 조직, 물적 자원을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여성정치네트워크는 각종 수준의 선거를 통한 정치과정에서 개인적인 차원이나 분절된 조직 차원에서 영향력을 얻기 힘든 여성 관련 이슈 등을 의제화 시키는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과 일본의 시도되었거나 진행 중인 여성정치네트워크 구성 사례들을 살펴본 다음 결론에서는 본 연구의 논의를 간단히 요약하고,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제언들을 여성정치네트워크와 관련하여 제시한다.

주제어: 여성 정치참여, 선거, 여성정치네트워크, 사회자본, 여성정치 의제

* 서헌주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연구위원)

** 김경숙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원장)

*** 송미영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연구위원)

I. 서론

한국에서 여성의 정치참여는 민주화 이후 확대 양상을 띠어왔다. 특히, 여성의 정치참여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여성 비례대표 할당제 도입 및 실시를 계기로 하여 수적인 측면에서 그 속도는 비록 완만할지 모르겠으나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한편, 2002년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비례대표 여성후보 50% 할당제가 실시된 이후 지방의회에서 여성의원의 수도 완만하지만 확대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추세가 과연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도 어느 정도 범위에서 지속 될지는 지켜보아야할 것이다. 그러나 17대와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성의 참여 확대 범위를 준거로 해서 살펴보면 여성의 지방의회 의석 진출 비율은 소폭 상승에 그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은 여성의 의회 진출을 포함한 양적 확대에는, 앞서도 지적하였지만, 여성비례대표 할당 도입 및 적용이 크게 기여했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여성 정치참여 확대 방안을 법·제도적인 차원에만 국한시켜 논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즉, 어떻게 여성의 정치참여확대를 위한 법·제도적 차원의 개혁을 이끌어낼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는 여성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법·제도개혁은 사회부문의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운동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담보될 수 있는 것이다. 좀 다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한국이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및 성인지(gender responsiveness)와 관련된 각종 선진 법·제도들을 도입하는데 있어 상당한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그러한 법·제도들이 현실적으로 적용되고 실천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역사적 경험은 법·제도의 실천에 있어서 사회부문의 지속적이고 조직화된 압력이 필요함을 역설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Maravall & Przeworski, 2003).

본 연구는 17대 국회의원 선거 및 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이르는 과정을 살펴보면, 18대 국회의원 선거 국면과 17대 국회의원 선거 국면과 크게 차별성을 띠는 현상의 하나로 여성 관련 단체 및 NGO 또는 연구기관 간의 연대조직 또는 네트워크 조직화의 유무에 주목한다. 18대 총선시기의

여성운동과 17대 그것과 비교해 볼 때, 전자의 시기에 여성 진영 내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기관 또는 조직간 연대 내지 네트워크화를 통한 여성의제의 발굴과 개발 그리고 이의 정치권에 대한 조직화된 압력 행사는 없었다. 구체적으로 일시적이긴 하지만 17대 총선 선거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활발하게 여성의 이익표출활동을 했던 여성 정치네트워크가 ‘17대 총선을 위한 여성연대’와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 등 2개가 있었던 반면에 18대 총선 선거에서 여성 정치네트워크의 구성은 없었다.¹⁾ 소위 진보로 대표되며 여성 친화적이라 평가될 수도 있는 노무현 정권하에서 치러진 17대 총선과 달리 18대 총선에서 여성 정치네트워크 형성의 부재는 가장 중요하게 당시 이명박 정부의 등장에 이은 여성부 존폐 논란으로 인한 여성운동계의 집중 역량 분산효과를 지적할 수 있고 둘째 과거 소위 민주정권하에서 여성운동 내부에서 일부 현실 안주적인 경향과 미래 좌표 모색의 미흡, 그리고 17대 총선에서 이루어낸 성과 등에 대한 여성운동계의 일종의 자기만족 등에 기인한 추동력 부재 등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지적은 2009년 11월 발족한 ‘2010 지방선거 남녀동수 범여성연대’가 출범 배경으로서 지적한 바 있는 ‘17대 총선이후 부재했던 범여성연대의 결성’이라는 뼈아픈 반성에 의해 일정부분 적실성이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이러한 조직화 또는 네트워크의 강함의 정도가 17대 국회의원 선거와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비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단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필요한 중요한 조건들 가운데 하나로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한 조직화 또는 네트워크화의 필요성과 개념 및 역할과 국내외 사례, 특히 일본의 사례에 대한 비교고찰을 통해 향후 여성운동의 방향성 등에 대해 주목했으면 하는 것이다. 일본의 여성 정치네트워크운동에 주목하는 것은 첫째 가나가와네트워크 등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보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생활정치에서 지역정치 수준으로 확대되어 여성의

1)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여성후보 할당제를 통해 여성의원수의 수가 기존의 선거에 비해 확대되었다.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여성의원수의 의원 진출은 17대 국회의원선거에 비해 약간 늘어나는데 그쳤다. 제18대 여성 국회의원 수는 41명으로 전체 299명 중 13.7%를 차지했으며 이는 2000년(16대), 2004년(17대) 국회의원 선거와 비교해 볼 때 각각 7.8%포인트와 0.7%포인트 상승한데 불과하다.

정치참여 활성화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점과 둘째 현재 침체기에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한국 여성운동의 좌표 모색에 있어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일부에서 일고 있는 선거에서 여성의 원내 진출이 과거 정치권에서 소외된 여성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여성주의 정치실현을 위해 확보한 여성 할당 의석이 전문성과 자질이 갖춰지지 않은 여성들에 의해 채워지는 경향이 있다는 일부의 뼈아픈 지적에서 기원한다. 이러한 문제들이 갖는 심각성은 이들이 여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여성이 정치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여성계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등의 주장이 갖는 설득력을 반감시킬 수 있다는 점과 국회는 물론 지역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부정적 전망을 가능케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정치참여의 지속적인 확대는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여성의 정치적 과소대표문제와 정치참여주체의 다양화 및 정책 합리성의 확보 그리고 정치사회적 학습 기능 등 측면에서 그러하다고 하겠다(Whitman & Gomez, 2009; 김용철, 2007; 엄태석, 2009; 조현옥, 2009). 이렇듯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정치참여가 어려운 것은 우선 한국 사회의 가부장적 인식, 조직 및 금권 선거정치문화, 관련 법·제도의 미비와²⁾ 정당의 역할 미흡이다(임원정규, 2008; 조현옥, 2009). 이러한 우리 사회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여성의 정치진출 장애요소들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가 여성 개인은 물론 여성 관련 단체들의 연계, 즉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미약하지만 일정부분 극복될 수 있다고 본다. 즉 전국적 수준은 물론 지역 수준의 여성 개개인 또는 여성단체들이 직면하는 문제 즉, 정치참여에 있어서 중요한 인적 자원이나 조직적·물적 자원의 부족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주목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여성 개인들 또는 여성 관련 기관들과 단체들 간의 연계를 통해 형성되는 위한 일종의 네트워크 조직의 형성이다.

2) 예컨대 선거제도를 들 수 있다. 현재와 같이 한 지역구에서 최다득표자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에서 자금 및 조직 동원력이 취약한 여성 후보자가 1등을 차지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는 앞서 지적한 문제의식 이외에도 여성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법·제도적 차원의 논의³⁾는 다양한 수준에서 이루어지는데 반해서 지역 차원의 여성정치인과 여성 관련 단체들 및 전문가 간의 연계를 통한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측면에서 논의의 초점을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한 네트워크 형성에 두고, 그것의 개념 및 역할 등에 대해서 살펴본 뒤, 한국과 일본에서 조직되었거나 현재 활동 중인 여성 정치네트워크에 대한 비교고찰하고 그 차별성의 원인과 시사점을 간단히 살펴보려고 한다. 결론에서 논의를 간략히 요약하고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여성 정치네트워크와 관련지어 제시한다.

II. 여성 정치네트워크의 개념과 역할

1. 개념 정의

여기서 잠시 네트워크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네트워크’(network)⁴⁾라 함은 현대사회에서 신축성 요구와 변동에 대한 적응 및 환경적 불확실성의 극복 등 새로운 조직구조의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등장하게 되었다(황병덕 외, 2006: p. 6). 또한 일반적으로 여러 지점들 간의 연계체계 또는 연계유형을 가리킨다(P. Seed, 1990: p. 19; 심재호, 2000: p. 153). 아울러 네트워크는 자율과 협력을 기본으로 개체와 집단이 유기적 조화를 구축하는 관계망(최배근, 2003: p. 8)으로 규정되며 “관계의 집합으로서 구성원 간에 국경을 초월하여 혈연, 지연, 학연, 업연, 교연 등 다양한 관계들을 상호 연결시켜 주고

3) 기존 연구로는 엄태석(2009a; 2009b), 조현옥(2009), 이문숙(2008), 임원정규(2008), 김형준·서경교·최연혁(2007); 김원홍(2007a; 2003b), 서영교(2007), 엄길임(2007), 국회 여성가족위원회(2005), 이은하(2005), 박재규(2004) 등이 있다.

4) 네트워크는 조직과는 다른 개념이다. 조직이란 일반적으로 법률에 의해 공식적으로 등록된 법적 기구이며, 영구적인 주소가 있고, 소유권과 권한에 대해서 규정이 있는 반면 네트워크는 이러한 공식적인 요소들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조직보다 덜 체계적이고 관료적이다. 네트워크는 우선적으로 내부의 구성원(회원)들에게 정보의 배분과 조직과 개인들의 연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성되어진다.

구성원들 간의 응집성을 갖게 해주는 것”(성경룡과 이재열, 1999: pp. 49-69)으로 파악된다. 한편 이러한 네트워크 개념을 단체에 적용하면 단체 네트워크는 상호의존으로 구성되는 단체들 간의 연결이며 행위자들이 서로 교류하고 관계를 맺는 사회적 공간을 의미한다(지충남, 2007: p. 173).

이상과 같이 네트워크의 정의가 다양하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은 보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데 일정정도 동의가 이루어져 있다(Caludia Liebler and Marisa Ferri, 2004: pp. 15-6). 우선 네트워크는 다양한 목적에 따른 다양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둘째 네트워크의 형태는 사례와 상황에 따라 공식적일 수도 있고 비공식적일 수도 있다. 셋째 네트워크는 구성원(회원)들에게 자원의 보고 이상의 것이라는 점이다. 회의들의 공헌과 기대이익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들이 존재한다. 대부분의 네트워크가 지식과 정보 공유를 주된 활동으로 하지만 그 핵심은 구성원(회원)들 간의 유대관계라고 하겠다.

네트워크는 행위자가 자원의 독립성, 정치적 지지에 의해 네트워크를 맺는 경우를 ‘협력적 연계’(cooperative ties)라 하고 의견이 불일치하고 충돌하는 것은 ‘갈등적 연계’(conflictual ties)라 하고 경우에 따라 협력적이기도 하고 갈등적이기도 한 경우를 ‘불일치 연계’(inconsistent ties) 그리고 네트워크 내 두 행위자가 갈등·반목할 때 이해관계가 없는 중재를 매체로 하는 경우를 ‘무관심형 연계’(indifferent ties)로 본다(김경주, 2001; 김재인과 임미영, 2004: p.373).

현대사회의 문제는 복잡하고 실타래처럼 엉켜 있어 특정 행위주체 홀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어느 행위주체도 당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자원과 권한을 충분히 소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겠다. 여성의 정치참여 문제 역시 전통적인 봉건적인 가부장제적 요소 등의 저해 요소가 강한 한국사회, 특히 지역 농촌사회에서 여성 홀로 또는 여성단체 홀로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하겠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한 네트워크의 형성은 대단히 중요한 자산 가운데 하나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네트워크라는 개념을 ‘사회자본’(social capital)⁵⁾이라는

5) ‘사회자본’이란 인적 또는 비즈니스 네트워크 안에서 또는 그러한 네트워크를 통하여

개념과 연계시키는 논의도 참고할 수 있다(Cote S. Healy & Healy T., 2001). 이를 여성의 정치참여라는 측면과 연결시켜서 살펴보면 네트워크는 여성 개인의 차원 뿐 아니라 한 여성단체에게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왜냐하면 개인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자원에 접근함으로써 그렇지 않으면 확보할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또한 그 개인은 연결망에 소속된 덕택으로 회소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A. Portes, 1998). 즉 네트워크는 분산되어 있는 자원을 모으는 효과적 기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집단의 경우에도 해당된다고 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네트워크는 사회자본의 한 요소로서 개인과 집단에게 이익이 공유된다고 하겠다(최종덕, 2007).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한 환경적 여건의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자주 제기되는 과제들로 지적되는 것은 여성에 대한 정치교육 활성화와 대학에서의 정치교육 뿐 아니라 정당과 여성단체의 정치교육 강화와 여성정치기금의 확보 및 여성정치대학원과 같은 전문적 교육기관의 설치와 대학과 정당 그리고 여성단체들의 컨소시엄(*consortium*) 구성을 통한 여성인재양성 교육기관 설립과 여성·시민 단체 여성 지도자들의 정치참여이다(임원정규, 2008).

이상의 과제는 정치권 또는 제도권에 진입 전의 잠재적 여성정치인들에 대한 지원이다. 그런데, 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또 다른 중요한 과제는 정치권 내지 제도권 진입한 여성정치인들에 대한 여성단체들의 지속적인 지원과 후원이다. 더 나아가 기성 여성정치인들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예비 여성정치인의 육성과 지원이다. 이러한 육성과 지원은 여성정치인 개인 내지 여성단체의 하나만의 활동을 통해서 담보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반복되는 지적이지만 여성정치인과 여성단체는 자금력과 인적·조직적 역량에서 미흡한 경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적한 바 있지만, 전국적 수준은 물론 지역적 수준에서 여성정치인의 자질과 관련한 문제제기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일부 여성정치인들에게 있어서 보이는 전문성 및 자질의 결여를 지적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용 가능한 자원으로 규정된다. 아울러, OECD(Office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사회자본을 "networks together with shared norms, values and understandings that facilitate co-operation within or among groups"이라고 규정한다.

여성 정치인들의 전문성과 자질의 결핍현상은 제도권과 시민사회내의 여성단체들과 여성의원들 상호간의 연계를 통해 충분히 극복될 수 있는 문제라고 판단된다. 한 지역의 여성정치인이 해당 지역 여성정치 네트워크를 통해 연계되어 의정활동 및 지역구(비례대표) 활동을 지원받게 된다면 전문성 또는 자질과 관련된 시비는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2. 여성 정치네트워크의 역할

그렇다면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형성되는 여성 정치네트워크는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가?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들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타고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여성성과 대외적 활동에 개인적으로 사회에 노출됨으로써 불가피하게 파생될 수 있는 대중으로부터의 찬사와 비난 등과의 사이에서 심리적 갈등을 겪게 된다(김용철, 2007: p. 325). 그래서 여성들은 정치에 입문해서도 적극적이기보다는 소극성을 띠기 쉽다. 따라서 여성으로 하여금 정치적 조직화와 집단화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분절되어 가지게 되는 정치활동에의 부담감을 경감시켜 주어야 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여성 정치네트워크의 역할이 등장하게 된다. 이 네트워크는 여성들 자신이 할 수 있는 여성단체조직이나 여성운동이나 국제적 활동 등을 집단적 또는 조직적으로 네트워크를 결성하여 이들이 개인적인 차원의 조직적인 참여를 가능케 해 준다.

둘째, 여성 정치네트워크는 정치권 또는 제도권 진입 이전 단계에 있는 잠재적 여성정치지도자들에게 좀 더 폭넓은 관계형성 및 정치적 교육과 학습의 기회와 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여성이 개별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거나 또는 그가 속한 한 여성단체나 시민단체가 제공하지 못하는 자원과 인적·조직적 관계를 형성시켜준다.

셋째, 여성정치 네트워크는 정치권 내지 제도권에 진입한 여성정치지도자들의 의정활동 및 지역 활동의 지원을 위한 배경이 된다. 몇몇 시민단체 또는 여성단체 출신의 여성정치가들을 제외하면 여성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의정활동 및 지역구 활동에서 체계적인 지원 내지 후원을 받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일단 여성정치지도자가 된 이후 이와 같은 시민단체나 여성단체 네트워크의 정책적, 조직적 지원을 받는다면 해당 지역의 여성(복지) 관련 의제 형성 및 관철 등에 있어서 크게 도움을 받게 될 것이며 아울러 이를 통하여 여성정치지도자 자신의 전문성과 자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일본의 ‘생활자치네트워크’는 좋은 여성정치후보생의 발굴 및 피라미드식 선거운동 지원 방식을 선택하고 당선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후원조직으로 활동한다(서영교, 2007: p. 84).

넷째, 여성정치 네트워크는 각종 수준의 선거를 통한 정치과정에서 개인적인 차원이나 분절된 조직 차원에서 영향력을 얻기 힘든 여성 관련 이슈 등을 의제화시키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한편, 여성정치인들은 자신에게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의 주민과 집행기관 그리고 정당 및 의회의원 간의 관계형성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으나 조화된 주민활용 및 지지세력 획득의 어려움과 집행기관 공무원과 의회 의원과의 남성 중심적 관계망 그리고 ‘정당공천제’의 영향력 등으로 주민과 집행기관 그리고 의회의원 및 정당과의 관계 형성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아미, 2006) 여성 정치네트워크는 바로 이러한 정치권 또는 제도권 내에서 여성정치인이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있어 중요한 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전국 수준 또는 지역수준에서 여성 정치네트워크를 구성할 것인가? 우리는 한국과 일본의 기존 사례에 대한 비교 검토를 통해서 현황과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Ⅲ. 한국과 일본의 여성 정치네트워크 사례 비교:

이하에서는 한국과 일본에서 형성된 여성 정치네트워크의 사례들에 대해 간단히 살펴본 다음 이들을 몇 가지 기준에서 비교 검토한다. 그리고 한일 간의 차별성의 배경에 대한 간단한 분석을 한 뒤 여성 정치네트워크 구성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1. 한국 사례

우선적으로 살펴볼 사례는 2008년 5월 27일 서정순과 조선미 그리고 홍미라를 공동대표로 하여 구성된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이다(여세연, 2008: pp. 10-11). 동 네트워크는 창립발기문에서 우선 “여성의 권익 신장과 지위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온 선배 여성 정치인들의 눈물겨운 노력을 기억하고 향후 여성의 정치세력화 및 성숙한 지방의회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디딤돌”을 놓고, 둘째 “여성 지방의원들이 지역사회에 희망을 만들어내고 주민과 함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생활정치를 실천해내는, 여성과 남성이 서로 존중하고 대등한 파트너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며 평등정치를 실천해내는 주춧돌”이 되며, 셋째 “지역을 새로운 관점과 시각에서 고민하고 디자인하는 창의적인 지역설계로 주민 참여에 기초한 생활 자치를 이루어 나가도록 노력하며, 지역발전을 위한 여성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 성과를 널리 알려 여성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밑거름” 역할을 하겠다고 하였다. 이러한 취지하에서 이 네트워크는 우수 조례연구 및 조례 제·개정활동과 예산·결산 심의 정보 공유 및 행정사무감사 정보공유 그리고 해외 선진지역 연수와 여성지방의원간 관계 형성 및 교류 그리고 의정활동 홍보 등의 주요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특히 이 조직체는 2009년 활동 2년째를 맞이하고 2010년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예컨대 2009년 1월 소속 의원 10명이 일본 도쿄도와 가나가와현 등 6개 도시 20여개 기관을 방문하여 의식을 확장하는 기회를 가진 바 있다. 아울러 2월에는 전북 무주에서 전국 각지에서 56명의 여성 지방의원들이 참석하여 전주시와 무주군의 우수정책 사례를 학습하고 우수 의정사례를 나누는 기회를 가졌다고 한다. 특히, 동 워크숍은 “전라북도의 친환경급식”, “전라북도 농업인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존지원조례”, “돈 없고 뺨 없는 여성의원의 지역주민조직 만들기” 등의 지역에 기초한 사례발표와 주민의 삶을 담아내는 전주시 한옥마을, 무주군 공공건축 등 상대적으로 삶과 밀착된 여성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으로 구성되어 진행되었다. 동 워크숍은 정당과 지역을 초월한 여성의원 간 연대가 구축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더 중요하게, 전국 각지에서 광역 및 기초를 포함하여 한나라당과 민주당 및 민주노동당 그리고 자유선진당 여성의원 56명이 함께 모여 주민참여와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과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하였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⁶⁾

이외에도 한국사회의 민주화 이후 지역 여성 정치네트워크 운동으로 오랜 역사를 갖는 대전여민회와 충북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충북여세연)를 지적할 수 있다. 먼저 대전여민회는 1987년 충남여민회로 창립한 이후 1998년 대전여민회로 개칭하여 20여년에 걸쳐 양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해 여성 참여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최근 대전여민회는 세계화와 빈곤의 지속 등과 같은 여성운동 환경 변화를 직시하고 기존 여성운동에 대한 성찰에 토대하여 활동방향을 첫째 다양성과 차이의 존중에 기초한 민주주의와 인본주의운동과 둘째, 생활과 지역에 기초한 성평등주의 생활운동 그리고 지역사회의 돌봄과 나눔의 상생공동체화를 통한 인권과 평등 및 평화의 대안사회 추구로 정하고 그 활동영역을 다층화 및 다양하고자 하는 노력은 주목된다.⁷⁾

한편 충북여세연은 2002년 충북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라는 명칭으로 창립되었으며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여성이 참여자치민주주의 실현에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차세대) 여성지도자 양성프로그램과 여성정치학교, 여성유권자 교육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수준에서 다층화되고 다양화된 생활정치 운동을 펼치고 있다.⁸⁾

이와는 달리 특정 이슈 예컨대 여성의 정치참여를 목적으로 하여 느슨한

6) <http://www.womanpower.or.kr/biz/root.php?code=&subp=&mode=&bbsid=root&cidx=&gbn=view&cate=&syar=&smnth=&ps=8&sp=&sw=&gp=1&ix=1672> (검색일: 2009.10.20).

7) 대전여민회는 각종 교육사업, 국제연대사업(‘필리핀희망연대’), 여성주의아카데미 운영, 풀뿌리운동센터(‘중촌마을어린이도서관 짜장’), ‘품앗이주민강좌’ 및 여성인권센터(‘느티나무’) 그리고 여성가장지원사업(‘희망가게’)와 여성가장긴급지원 ‘SOS캐쉬’ 등을 활발하게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tjwomen.or.kr/> 을 참조.

8)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cbwomanpower.or.kr/> 을 참조.

일시적으로 형성된 네트워크가 있다.⁹⁾ 이의 대표적인 예는 ‘여성정치네트워크’와 ‘17대 총선을 위한 여성연대’이다. 최근 2010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조직된 ‘2010 지방선거 남녀동수 범여성연대’가 있다. 여성정치네트워크는 한국여성유권자연맹과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및 한국여성정치연구소 그리고 한국여성정치연맹으로 구성되었으며, 1998년 6.4지방선거를 맞이하여 1997년에 결성된 것으로 당시 기초단체장 7명과 광역의원 14명 그리고 기초의원 34명 등 55명의 출마자들을 후원한바 있다(김은경, 2004; 박병섭, 1998). 반면에 ‘17대 총선을 위한 여성연대’는 321개 여성단체들이 연대하여 정치개혁과 획기적인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달성을 목적으로 2003년에 출범하였다. 이는 압력단체로의 여성 단체들의 연대활동을 통해 기존 정당 등에 대해서 좀 더 효과적이고 강력한 영향력 행사를 목적으로 한 것이며, 여성단체들의 네트워크기구라고 하겠다.

아울러 2003년 11월 6일 당시 17대 총선을 대비하여 각 정당의 여성후보 공천과정을 개선하고 여성 정치참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구성되었던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도 있다. 이 단체는 앞서 언급된 바 있는 ‘17대 총선을 위한 여성연대’와 달리 여성의 정치참여에 관심을 갖고 있는 각계 인사들이 개인 자격으로 참여해 구성된 단체이다.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는 한국정치의 부패악순환의 원인을 남성중심의 정치문화로 규정하고 여성이 정치참여를 통해 “정치개혁을 진전시키고 맑은 정치의 새판”을 만들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발족하였다. 당시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는 각 정당의 여성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들의 투명성을 검증하는 한편 여성후보에 대한 공천요구 및 지지 그리고 당선운동을 전개하였다.

한편, ‘2010 지방선거 남녀동수 범여성연대’는 김정숙/남윤인순을 공동

9) 논리적으로 볼 때, 여성 관련 단체는 물론 시민단체(NGO)를 포함하여 학계 및 전문가 집단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여 네트워크를 형성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다. 아직까지 이 수준에 이른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광범위한 네트워크의 형성, 특히 학계 및 전문가 집단을 포괄한 단순히 기존 정치판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치 패러다임의 전환과 같은 시도를 할 수 있으며, 또한 재정상의 취약성도 일정부분 극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슈의 여성 중심성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참여하는 시민단체(NGO)별 노선차이, 정책차이 그리고 중심 의제(agenda)의 우선성에 있어서의 차이 극복이라는 만만치 않은 과제가 놓여 있다는 측면에서 결코 쉽지 않은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대표로 하여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주요 활동목적으로 하는 각계 여성단체들이 참여하여 새롭게 결성한 범여성계 연대조직으로써 제5회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성들의 힘을 모아 생활정치의 장인 지방의회에서의 평등정치 실현을 위한 활동 전개를 목표로 하여 출범하였다. 이에는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의회를사랑하는사람들,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맹, 21세기여성정치연합, BPW한국연맹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방의회 50% 여성참여”를 그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2010 지방선거 남녀동수 범여성연대, 2009).

2. 일본의 사례

여기서 일본 후쿠오카현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여성과 정치를 연결하는 모임’(츠지모토 미에코, 2009)의 조직의 활동과 아울러 최근 한국에 지역생활정치운동으로 많이 알려지고 있는 ‘가나가와네트워크운동’ 및 ‘동경생활자네트워크’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자 한다.¹⁰⁾

한편, ‘여성과 정치를 연결하는 모임’과 ‘가나가와네트워크운동’과 ‘동경생활자네트워크’는 그 출발점과 발전과정이 다르다고 하겠다. 후자는 지역 여성들이 지역생활정치로부터 문제의식을 갖고 출발해서 지역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여성의 정치참여로까지 활동영역을 확대·발전시킨 것이다. 반면 전자는 전·현직 정치인들이 지역정치에의 필요에 공감하여 형성된 조직체라고 하겠다. 그러나 공통점은 지역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조직체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여성과 정치를 연결하는 모임’은 츠지모트 미에코가 1995년 시의원으로서 재직할 당시에 조직된 것이다. 당시 “여성의원은 숫자에 약하고, 여성 의원은 눈앞의 일만 문제 삼고 큰 정책은 파악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계기로 삼아 의원으로서의 자질향상을 목표로 하여 학습회를 시작하였고 자민당과 공명당 그리고 공산당 이외에 시민운동을 통해 의원직을 얻게 된

10) 물론, 이외에도 일본에서 활동 중인 네트워크운동 조직들이 있다. 여기서, 일본에서 지역수준에서 대표적이며 여성의원 진출 등의 활동에서 활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여성정치네트워크들을 소개한다.

여성의원들이 정책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여 형성되었다. 현재 35명의 전·현직(현직 28명, 전직 7명) 여성정치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월 1회 정기모임을 개최하고 있다고 한다.

동 조직은 전·현직 의원 간 일종의 네트워크 조직으로써 지방의원들의 능동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백업스쿨(back-up school) 개최, 선거활동 지원, 연수 등의 교육, 연구 및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동 조직의 대표적인 활동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기초 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어린이권리조례를 제정한 바 있고, 둘째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 수와 학급 수에 따른 책이 구비되어 있는지의 검토를 통해 지방교부세의 적절한 집행 여부를 감독하고 있으며, 셋째 정치윤리에 기초한 공공예산의 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제도를 통해 판공비(업무추진비)의 사용처와 그 상대를 공개토록 하고 그 사용액을 의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신문 등의 언론매체의 취재를 통해 판공비(업무추진비)의 사용처를 밝히고 있다. 넷째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해서 자치단체와의 교섭을 통해 정부정책과는 별도의 예산 지원을 요청한다고 한다.

한편, 동 조직의 회장은 “여성의원은 어떤 전문분야를 가지고 활동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가’란 정치를 직업으로 하는 전문가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만든 정책이 시민의 이익에 부합되는지 수정할 부분이 없는지 논의를 거듭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일반시민으로서의 생활감각’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대안제시를 위해서는 시민의 감각을 가진 채 전문가로서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조사와 연구에 매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일을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각자가 가진 전문지식으로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각각의 회원들이 의원이 되기 이전부터 해왔던 활동은 다른 의원들에게 참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고 하면서 동 조직 소속 여성정치인의 인식과 자세 그리고 동 조직 소속 정치인에게 제공하는 혜택에 대해서 역설한다(츠지모토 미에코, 2009).

한편, ‘가나가와네트워크운동’은 여성정치네트워크와는 달리 정치적 성격을 띠는 지역정당으로써 1990년 생활클럽 생협의 총대회에서 붙여진 ‘생활클럽운동’의 한 부분이다. 생활클럽운동은 노동자협동조합, 커뮤니티클럽 생활협동조합, 복지클럽 생활협동조합, 생활클럽생활협조합, 가나가와네트워크운동(지역정당)을 포괄한다. 그런데 우리가 가나가와네트워크운동에 주목하는 것이 그것이 생활클럽운동, 즉 생활이라는 토양과 수평적인 인간관계 그리고 협동조합형 경영방식을 특징으로 삼고 있는 조직들 간 네트워크의 일부분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나가와네트워크운동’은 1960년대 노동운동이나 학생운동에 관여한 사람들이 그 운동의 패배의식에서 벗어나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은 지역의 여성들이며, 이들을 조직하려고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미도리구에서 생활클럽 생협으로 시작되었다. 1980년 ‘합성세제 추방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요구가 의회에서 부결되고, 의회가 여성 의제보다는 남성 의제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갖게 되면서 정치세력화에 노력하였다.¹¹⁾ 다시 말해 ‘가나가와네트워크운동’은 기존의 생활클럽운동을 모태로 하고 여타 형태의 협동조합운동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지역차원의 정치세력화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가나가와네트워크운동’(NET)은 1984년에 정식으로 설립되었으며 여성이 운동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아울러 동 조직은 “본래 정치의 목적은 사람들의 경제·사회·문화적인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의 실현”이라는 점을 유념하면서, 중요하고 긴박한 과제들로 첫째 각 운동은 전통적인 이데올로기를 끊임없이 자기 혁신하여 운동 상호간에 자신의 존재가치를 상대화시킬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 둘째 정치가 변혁의 동인을 가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창의력과 행동력을 조직화하는 것, 셋째 사회운동의 역사적 역할과 개인의 인생의 의미를 통일시킬 수 있는 사회적 조건과 장치의 창출 그리고 지역자치의 존재방식의 모색을 제시한다(카쓰미, 2002: pp. 168-169). 더 나아가 ‘가나가와네트워크운동’은 ‘자치사회운동’인 바 기존의 정치 및 문화의 존재양식을 비판하고 일상생활공간을 새롭게 설계하는 사회운동으로써 새로운 연대관계의 형성을 통해 정치를 변화

11) <http://www.kgnet.gr.net> (검색일: 2010년 3월 2일) 참조.

시키고자 하는 것을 그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목표 하에서 ‘가나가와네트워크운동’은 1987년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의원을 당선시켜 왔으며 정치학교 등의 운영을 통해 예비정치인 및 기성정치인을 대상으로 실제 중심의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선거운동도 지원한다.

한편, ‘가나가와네트워크운동’과 비슷한 맥락에서 주목할 만한 운동 조직으로 ‘동경생활자네트워크’를 들 수 있겠다. 이 조직은 동경도 내 33개 지역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지역과제를 취급함과 동시에 시나 구의 경계를 초월한 ‘동경문제’에 대해서는 전체가 참여하고 동경을 ‘생활의 동네, 생활하기 편한 동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아울러, 이 조직은 의원을 순환제로 운영하고 그들의 보수는 시민의 활동자금으로 하고 선거는 네트워크 참여자의 자발성에 기초하여 시민의 자금과 지혜 및 노력을 통해 치른다는 3대 원칙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 조직 역시 가나가와네트워크운동과 비슷하게 생활정치운동에서 출발하여 지방의회에 여성의원을 진출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동 조직체는 대리인 운동으로 일본에서 여성의 의원직 진출을 크게 증가시켰으며 생활문제를 부각시키는데도 크게 공헌하고 있다. 특히 ‘동경생활자네트워크’는 후보와 네트워크 간에 계약서에 나타난다. 후보자가 당선 후 월급을 받게 되면 전부 생활자네트워크에 기부한다는 조건으로 생활자네트워크에서 후보자에 대한 선거비용과 인력을 지원한다. 또한 생활자네트워크에서 의원은 ‘대리인’의 개념으로 의원으로서의 정치참여 기회를 되도록 확대시키기 위해서 출마기회를 제한하고 있다. 이외에도 동 조직은 생활중심의 소규모 정책제안운동과 수질조사 등의 조사활동 그리고 소규모 포럼 개최와 예산제안운동 및 민관협의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¹²⁾

3. 비교적 관점에서 본 한국과 일본의 여성 정치네트워크

한국과 일본의 여성 관련 네트워크 조직체들은 크게 다음의 몇 가지 수준에서 대별이 가능하다.

12) <http://www.seikatsusha.net> (검색일: 2010년 3월 24일).

우선 네트워크의 구성단위로서 개인 수준인가 단체(조직) 수준인가 아니면 혼합적 수준인가에 따라 네트워크를 분류할 수 있다. 네트워크가 여성정치인 등의 개인별 차원에서 형성되는 것인가. 또는 네트워크가 여성 관련 단체들 간에 이루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네트워크가 그 중간적 성격인 개인과 단체가 연계된 것인가 하는 것이다. 한국의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와 ‘대전여민회’ 및 ‘충북여세연’ 등과 일본의 ‘여성과 정치를 연결하는 모임’은 지역 시·군 또는 도의원 개인의 차원에서 조직된 여성정치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겠다. 반면에 한국의 ‘여성정치네트워크’,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 ‘17대 총선을 위한 여성연대’, ‘2010 지방선거남녀동수 범여성연대’와 일본의 ‘가나가와네트워크운동’과 ‘동경생활자네트워크’ 등은 지역 단체 간의 네트워크 조직이라고 할 수 있겠다.

둘째, 네트워크 활동이 상시적 수준인가 아니면 일시적 수준인가에 따라 분류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과 일본은 현저히 대비된다. 한국 여성정치네트워크들은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와 ‘대전여민회’ 및 ‘충북여세연’ 등을 제외하면 대체로 특정 선거 시기를 중심으로 한시적 성격의 조직체로 운영되는 측면이 강하다고 하겠다. 반면, 일본의 여성정치네트워크 조직들은 한시적 성격을 띠기보다는 상시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여성정치네트워크들과 크게 대비된다. 다시 말해 일본의 여성정치네트워크들은 한국의 경우와 달리 특정시기에 특정 목표달성을 위해 일시적으로 정치 등의 활동을 전개하는 조직이 아니라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일본의 여성정치네트워크들이 조직의 응집성이라는 기준에서도 한국의 경우보다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셋째, 네트워크 조직이 전국적인가 아니면 지역적인가에 따라 구분이 될 수 있겠다. 이는 네트워크 구성단위의 지역적 범위 내지 분포를 지칭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간단하게 살펴본 바 있는 한국의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여성정치네트워크’,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 ‘17대 총선을 위한 여성연대’, ‘2010 지방선거 남녀동수 범여성연대’ 등은 전국적 네트워크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일본의 ‘가나가와네트워크운동’과 ‘동경생활자네트워크’, ‘여성과 정치를 연결하는 모임’과 ‘대전여민회’ 및

‘충북여성연’ 등은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하겠다. 물론, 앞서 잠깐 언급한 바 있듯이 ‘가나가와네트워크운동’ 등은 일본 여타 지역의 네트워크 운동들과 더 큰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들은 모두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하겠다.

넷째,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행위자간의 연계형태가 협력적인가 갈등적인가 아니면 무관심형인가에 따라 구분이 가능하다. 한국과 일본의 모두 여성정치네트워크 조직들은 행위자간의 연계형태가 협력적 형태라고 평가될 수 있다.

한·일 간에 이와 같이 여성 정치네트워크 양상에 있어서 차별성을 배태시킨 배경은 무엇인가?¹³⁾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 발전에 있어서의 역사적 문화와 환경의 차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한국의 시민단체나 네트워크는 기존의 상하관계, 혹은 중심과 주변, 서울과 지역, 고도의 조직력과 결속력, 효율성 등이 발달되어 있으며 이는 역사·전통적으로 인본주의와 가족주의적 세계관과 한국전쟁 등의 역사적 충격에 기인한다고 본다. 이는 “무정형의 사회” 즉 이념, 종교, 계급 등을 축으로 한 갈등과 다양성이 내재된 서구식 정당정치로의 발전을 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서진영 외 1998). 이는 그레고리 헨더슨(1968)이 한국사회를 갖는 통일성과 동질성을 갖는 사회로 규정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그는 한국사회가 갖는 이러한 특성들이 대중사회의 특징들 즉 중앙집권화와 독재화 경향을 낳고 지속시켜 사회 내에 균열 형성의 요인의 결핍을 낳기 때문에 그룹의 형성은 자연적이기보다는 인위적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반면에 일본의 시민단체나 네트워크는 역사적인 봉건제적 문화 등의 영향으로 느슨한 수평적 형태의 네트워크가 지속되기 쉬운 사회구조를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 중요하게 지적될 수 있는 것이 바로 한국과 일본에서의 전문가에 대한 인식의 차이이다. 한국에서 전문가는 교수처럼 일정한 직위를 가진 사람으로 생각되는 반면 일본에서 전문가의 지위는 직위가 아닌 오랜 경륜과 지식을 갖고 해당 분야에서 활동 여부로 결정된다. 또한 정부의 시민단체나 네트워크에 대한 재정지원은 정권이 변동과

13) 이와 관련한 논의에 대단히 유익한 시사점과 논평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께 감사
를 드린다.

담당 공무원의 변동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은 물론 정부의 개입이나 간섭도 최소화되어 있다. 따라서 시민단체나 네트워크의 물질적 기반이 보장되어 제도권이나 비제도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간의 삶의 질 격차가 한국만큼 크지 않다고 하겠다. 더 나아가 직업에 대한 관념에서도 한일 간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즉 일본의 직업에 대한 귀천에 관념이 상당히 약한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상당히 강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직업관 역시 네트워크 활동에 반영된다.

흥미롭게도 최근 한국에서 일시적으로 선거 국면에서 형성되는 네트워크와 달리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와 대전여민회 그리고 충북여성정치네트워크 등의 운동단체들이 일본의 사례와 같이 지역 수준에서 생활정치영역에서의 양성평등 확대와 여성의 역량강화를 통한 참여 증진 등을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 및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이는 일본 사례에 대한 학습에 기인한 측면도 있고 지난 시기 여성운동에 대한 성찰 등에 복합적으로 기인한다. 다시 말해 일본의 여성 정치네트워크 성공사례를 배우고자 하는 측면과 과거 국가를 포함한 제도권을 향한 여권신장을 위한 투쟁 및 제도 개혁 중심의 운동방식에 대한 반성을 통해 운동의 방향을 기층수준에서부터 다져나가고자 하는 측면이 함께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네트워크 운동들이 일본에서처럼 실질적으로 지역 차원에서 여성의 정치참여를 통한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이들 네트워크가 주도적으로 지역 수준의 여성정치인들을 상대로 하여 연대·협력하여 각종 다양한 활동 및 프로그램을 전개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본 한국과 일본의 네트워크에 대한 비교 검토 등을 기초로 해서 여성 정치네트워크를 구성방안을 상정해보면 몇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겠다. 이미 앞서의 사례들이 다양한 기준에 따른 구성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는 기존의 사례와 일본의 경험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구성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¹⁴⁾

우선, 개인네트워크-지역네트워크-전국네트워크라는 3층 구조(three-

14) 이들이 현재와 같이 일시적일수도 상시적일수도, 느슨할 수도 강고할 수도 있다. 여기서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이러한 경우는 필요에 따라 언급하고자 한다.

layer structure)의 여성정치인들이 중심이 되는 여성정치네트워크 형성 방안이다. 예컨대, 특정 기초 수준의 여성정치인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과 그를 구성단위로 광역 수준의 여성정치네트워크 형성 그리고 다시 이를 묶는 전국 수준의 지역 여성정치네트워크 형성이다. 물론 여기에는 여성 국회의원도 포함된다. 이는 여성정치인들을 구성 주체로 하여 네트워크의 네트워크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하겠다.

둘째, 여성 관련 단체들이 중심이 되는 여성단체간의 여성정치네트워크 형성방안이다. 이는 기존에 시도된 바 있는 형식이라고 하겠다. 단지 이들 여성단체 네트워크를 방금 앞서 지적한 바 있는 여성정치인 중심의 네트워크 형성방안과 마찬가지로 지역네트워크-전국네트워크의 2층 구조(two-layer structure)로 형성할 필요가 있으며, 전자는 상시적으로 운영되고 후자는 특정시기에 형성되어 운영될 필요가 있겠다.

IV. 결론

우리가 전국수준은 물론 지역수준의 여성 개인 및 여성단체들이 정치권 진입을 전후하여 직면하는 인적, 조직적, 그리고 물질 자원 부족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대안으로 반드시 주목해야 하는 것이 바로 여성정치네트워크의 구성이라고 하겠다.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해서 전통적인 가부장제 등의 부정적인 요소 내지 배경이 더더욱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지역 사회에서 여성 홀로 또는 여성단체 단독으로 정치권 진입은 난망한 일이다. 바로 여성정치 네트워크의 구성은 여성 개개인 및 여성단체에게 중요한 자산으로 기능할 수 있다. 즉, 여성정치네트워크는 정치권 또는 제도권 진입을 희망하는 예비 여성정치인과 기성 여성정치인들에게 다양한 인적, 조직적, 그리고 물질적 자산을 제공하는 토대로 기능할 수 있다.

매 선거시기마다 반복되는 현상이지만 이번 2010년 지방선거를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은 시점에서 여성계 및 학계 등을 중심으로 다시금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법·제도적 차원의 개선책 등에 대한 논의와 동시에

이를 실제화시키기 위한 조직화 움직임도 일부 있다. ‘2010 지방선거 남녀 동수 범여성연대’가 그 한 예이다.

다음에서는 여성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여성 정치네트워크 구성이라는 측면과 결부시켜 몇 가지 과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여성의 정치참여 제고를 위해서는 여성의 정치권 내지 제도권 진입의 법·제도적 장치 확대가 마땅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여성 할당제의 대폭 확대, 여성 단독 지역구 도입, 비례대표 대폭 확대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조건으로 여성의 정치권 진입 확대를 위한 법·제도적인 차원의 개선뿐 아니라 정치권 진입 후의 여성정치인에 대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지적하는 여성정치네트워크의 형성이 중요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여성 할당제 등의 도입으로 여성 정치인의 수가 증대하였으나 여성정치인의 전문성 및 자질과 관련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일부 전문성과 자질이 부족한 여성들의 정치권 진입에서 파생된 문제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그 문제를 여성정치인 개개인 차원의 문제로만 귀속시키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전문성 담보 욕구 및 관련 여성단체나 기관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었다면 여성정치인의 전문성과 자질문제는 상당부분 상쇄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여성 정치인의 전문성과 자질 문제는 자칫 그 동안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해 벌였던 지난한 운동과 투쟁, 그리고 그를 통한 이룩한 법·제도적 성과를 퇴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하겠다.

셋째, 여성의 정치권 진입 전후의 활동 그리고 전문성과 자질 함양을 위해 전국 또는 지역 수준에서 일부 여성 관련 단체 또는 기관들이 주도적으로 자발적으로 최소한 느슨한 형태만이라도 지속적인 성격을 띠는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한 네트워크가 구성되었으면 한다. 이러한 언급이 일본의 느슨한 형태의 지속적인 네트워크가 한국형 여성 정치네트워크보다 더 낫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형 여성 정치네트워크가 고도화되고 있고 수직적이고 중앙집중화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네트워크 구성원들 간의 가용 자원들의 교환 및 의사결정에 있어서 효율성과

신속성 및 집중성 등을 피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가용자원과 의사결정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반면 일본과 같이 느슨한 수평적이고 분권적 형태의 아래로부터 네트워크는 그 구성원들 간의 가용 자원의 다양성 확보와 민주적인 의사결정의 장점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러나 신속성과 집중성을 요하는 상황에서의 의사결정과정의 지체라는 단점을 갖는다. 따라서 한국의 여성 정치네트워크는 필요에 따른 한시적으로 연대 조직체의 성격을 띤 네트워크를 구성해도 좋을 것이다. 더 나아가, 전국적 차원을 포괄하는 여성 정치네트워크 형성이 어렵다면 지역 수준의 道 또는 市·郡을 단위로 하는 여성 정치소지역 네트워크 또는 전·현직 시·군 및 도 여성의원들 중심으로 한 여성정치인 네트워크 구성을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김형준·서경교·최연혁(2007). 여성정치선진화와 양성평등사회구현을 위한 정책대안. 서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2005). 여성들의 지방의회 진출을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 모색: 후보자와 유권자들의 입장과 태도를 중심으로.
- 김경주(2001). 여성정책결정과정에서의 정책네트워크 분석: 근로여성의 모성보호정책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원홍(2007a). 18대 총선과 여성의 정치세력화. 젠더리뷰, 제7호(겨울), pp. 27-38.
- 김원홍 외(2003b). 정당의 여성후보공천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김재인·임미영(2004). 한국 여성정책네트워크에 관한 실태 분석. 한국행정학보, 제38권 제6호, pp. 371-390.
- 김은경(2004). 여성의 정치세력화, 그 가능성과 딜레마. 여성과 사회, 제15호, pp. 275-301.
- 김용철(2007). 지방자치제하에서 여성정치참여의 실태와 정책방향. 한국정책학회보, 제16권 제4호, pp. 307-328.
- 박병섭(1998). 한국민주주의와 지방자치. 서울: 문원출판.
- 박재규(2004). 17대 총선과 여성후보 지원에 관한 연구. 전주: 전라북도 여성발전연구원.
- 서영교(2007). 대한민국 지방정치에서 여성의 정치참여확대 방안: 2006년 5.31지방선거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서진영·김병국·함재봉 (1998). 21세기 한국정치. 서울: 삶과 꿈.
- 성경룡·이재열(1999). 민족통합에 관한 네트워크 접근. 춘천: 한림대학교 민족통일연구소.
- 심재호(2000). 지역복지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제3권, pp. 151-171.

- 엄길임(2007). 지방자치시대의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엄태석(2009a). 여성의 정치참여가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가? 고양시
의회 여성의원의 의정활동을 중심으로.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개원 10주년 기념 학술회의 발표논문.
- _____(2009b). 충남여성 정치참여 제약요인의 해결방안과 정치참여
의식제고. 충남여성포럼 발표논문.
- 요코다 카쓰미(2002). 어리석은 나라의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시민: 생활
클럽 운동그룹과 풀뿌리 민주주의 운동의 모델만들기. 나일경 역.
서울: 논형.
- 이문숙(2008). 프랑스의 여성정치참여: <동수법>의 효과인가? 한국
프랑스학논집. 제61집, pp. 479-510.
- 이아미(2006). 지방의회 여성의원의 정치적 영향력 확보를 위한 관계
형성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하(2005). 충남여성의 정치세력화 실패요인 및 성공전략에 관한
연구. 공주: 충남여성정책개발원.
- 임원정규(2008). 18대 총선평가와 여성의 정치세력화. 제18대 총선
평가와 지역운동의 방향모색 토론회 발표논문.
-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2008). 여세연소식, 통권 제36호, pp. 10-11.
- 조현옥(2009). 여성의 참여확대를 위한 2010지방선거제도 개선방안.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개원 10주년 기념 학술회의 발표논문.
- 지충남(2007). 재외한인 시민사회단체의 네트워크 실태와 발전방향.
대한정치학회보, 제15권 제1호, pp. 171-194.
- 츠지모토 미에코(2009). 생활과 정치를 연결하는 여성의원 활동. 충청
남도여성정책개발원 개원 10주년 기념 학술회의 발표논문.
- 최배근(2003). 네트워크 사회의 경제학. 서울: 한울아카데미.
- 최종덕(2007). 사회자본 형성을 위한 시민교육의 방향. 시민교육연구,
제39호 제4호, pp. 135-161.
- 황병덕·정영태·최대석·배진수 외(2006). 동북아 지역내 NGO 교류
협력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방안(총괄편). 서울: 통일연구원.

- 2010 지방선거 남녀동수 범여성연대(2009), 2009.11.11자 보도자료.
- Henderson, Gregory (1968). Korea: The Politics of the Vortex. 그레고리 헨더슨(2000). 박행웅·역. 소용돌이의 한국정치. 서울: 한울아카데미.
- Liebler, Caludia & Ferri, Marisa (2004). NGO Networks: Building Capacity in a Changing World. A Study supported by Bureau for Democracy, Conflict and Humanitarian Assistance, Office of Private and Voluntary Cooperation.
- Maravall, Jose Maria & Przeworski, Adam(2003).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쉘보르스키·마라발(2007). 안규남 역.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서울: 후마니타스.
- Portes, A. (1998). Social Capital: Its Origins and Applications in Modern Sociology, Annual Review of Sociology, Vol. 24, pp. 1-24.
- S., Cote & T.,Healy (2001). The Well Being of Nations. The role of human and social capital. Paris: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Seed, P.(1990). Introducing Network Analysis in Social Work. London: Jessica Kingsley Publishers.
- Whitman, Tobie & Gomez, Jessica(2009). Bringing Women into Government. Strategies for Policymakers. No. 1, pp. 1-16.

A Study on the Method of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Women's Political Network Movements between Korea and Japan

Heon Joo Suh* · Kyung Sook Kim** · Mi Yong Song***

There was a notable difference between the 17th General Election and the 18th General Election, which is concerned with women's movement for enhancing their political participation. That is, the 17th General Election saw the rise of women's political network movements for expanding their political participation which were activated by women's NGOs and interest groups while the 18th General Election saw the virtual absence of women's political network movements.

This study notes this aspect of women's political movement and argues that in order to expand women's participation in politics, women's NGOs or interest groups reorganize or rebuild their own political (participation) network. In addition, the past studies have tended to focus upon the law-institutional dimensions of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Political network movements for enhancing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could overcome the entrenched political, socio-economic, and cultural obstacles which are embedded in Korean society. That is, women's political networks on national or regional basis can solve various problems such as political finance, human resources, and organizing power facing (potential) female politicians in our society. Besides, women's political networks on national or regional level may greatly help put women-related issues on election agenda because it can serve as a important political pressure for political society.

* Heon Joo Suh(Research Fellow, Chungnam Women's Policy Development Institute)

** Kyung Sook Kim(President)

*** Mi Yong Song (Research Fellows)

After reviewing the past experiences and cases of women's political networks (movements) both in Korea and Japan in comparative perspective, this study will look at a couple of possible ways of organizing women's political network. Finally, it will propose some policy tasks for improving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which are related to women's political network.

Key words: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election, women's political network, social capital, women's political agenda

